

한전, 탄소중립 선도 '新중동 청정 에너지 붐' 일으킨다

사우디 기업 아람코와 청정암모니아 국내 도입 협약... Team Korea 구성 사우디전력공사와 그리드 표준화·엔지니어링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한국전력이 중동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들과 제휴를 맺고 탄소중립 선도에 나선다.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 에너지기업들과 수소암모니아, 그리드 분야 협력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교환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한전은 이현찬 신성장-해외사업본부장이 참여한 가운데 사우디 기업 아람코와 청정암모니아 국내 도입을 위한 사업참여 의향서를, 사우디전력공사(SEC)와 그리드 분야 기술협력 및 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전은 국내 기업인 포스코홀딩스, 롯데케미칼과 함께 사우디 아람코로부터 저탄소 청정암모니아를 국내로 도입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한전과 아람코가 지난 2021년 발주한 '자푸라 열병합 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을 수주해 현재 건설 중에 있다.

한전은 이번 협약을 통해 포스코홀딩스, 롯데케미칼과 'Team Korea'를 구성, 청정암모니아 장기 구매와 아람코 블루암모니아 사업 지분투자 관련 된 구체적인 조건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Team Korea는 석탄발전소 암모니아 혼소발전, 수소환원제철, 석유 화학 등 분야에 청정암모니아를 활용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달성에 힘을 보탬 계획이다.

또 한전은 사우디전력공사와 사우디 내 그리드 표준화, 엔지니어링 및 사업 공동개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두 회사는 '2009년 라빅 중유화학 발전소 건설



지난 22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한국-사우디' 투자포럼 MOU에서 한전 등 국내 기업 관계자와 사우디 관계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전 제공>

및 운영사업' 공동추진을 계기로 포괄적 협력 MOU를 체결한 이후, CEO와 실무자 면담 등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특히 '2021년 사우디 그린 이니셔티브' 출범으로 사우디 전력분야에 지속적인 투자와 신기술 적용이 전망됨에 따라 HVDC 및 지능형 디지털발전소 등 선진기술 적용을 목표로 양사의 기술력과 경험을

공유하고 정기 기술교류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한전은 사우디 현지기업인 알조마이 에너지(Abdulrahman Bajunaid)와 해외 그린 수소시장 공동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한전은 사우디의 에너지 전문개발사인 알조마이 에너지(AEW)와 해외 수소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사우디 기업들과의 사업참여 의향서·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전통 화력분야에서의 협력을 넘어 청정암모니아 및 그리드 분야까지 관계를 확장함으로써 사우디 진출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난 21일 미국 아메리칸드림에서 열린 'K-푸드 드림 데이'에 참여한 미국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한국 음식을 맛보고 있다. <aT제공>

aT, 미국 아메리칸드림서 'K-푸드 드림 데이' 개최

어린이들 도시락 만들기 등 다양한 참여 이벤트 진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21일 미국 동부지역 최대규모의 복합쇼핑몰 아메리칸드림에서 'K-푸드 드림 데이'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아메리칸드림'은 연간 40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규모 복합쇼핑몰로, 농식품부와 aT는 미국 주류 소비자와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K-푸드'를 직접 맛보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aT는 김치, 고추장 등 한국 대표 발효식품과 라면, 음료, 스낵 등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K-푸드 도시락 만들기 ▲로블록스(Roblox) K-푸드 시뮬레이터 게임 대결 등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했다.

농식품부와 aT는 미국 수출 확대를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푸드바자(Food Bazaar) 등 대형 유통매장과 아마존 등 온라인몰에서 다양한 K-푸드 판촉행사를 진행한다.

권오엽 aT 수출식품이사는 "미국에서 인정받고 해마다 인기가 높아지는 K-푸드의 안정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미래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맞춤형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 내 K-푸드 소비자의 규모와 연령층이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든 마케팅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전KPS, 한국품질만족지수 12년 연속 1위

발전설비 정비서비스 부문

한전KPS는 '2023년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발전설비 정비서비스 부문에서 12년 연속 1위 기업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한국표준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품질경영학회가 후원하는 한국품질만족지수는 품질의 우수성과 만족도를 고객과 전문가가 직접 평가하는 국내 대표 품질 만족 평가 종합지표다.

한전KPS는 지난 2012년을 시작으로 지난 2021년 10년 연속 1위 기업에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영예를 안은데 이어, 올해까지 12년 연속 1위 기업에 선정됐다.

한전KPS는 "핵심발전설비에 대한 수명진단과

책임정비를 수행하는데 있어 첨단장비와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진단 및 정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밝혔다.

한전KPS는 고품질 정비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해외 발전설비 정비 시장에서도 연이어 대형사업 수주에 성공하는 등 '발전수출산업화'라는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앞장선 점이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김흥연 한전KPS 사장은 "올해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1위 기업 선정은 전사적 품질 혁신 활동 노력이 고객가치를 창출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넘버 원' 품질경영력으로 고객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어촌공사, 꿀벌 보호 밀원수림 조성 추진

슬로베니아 대사관·한스자이텔재단 한국사무소 협약

한국농어촌공사는 24일 주한 슬로베니아 대사관, 한스자이텔재단 한국사무소와 '밀원수림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멸종 위기에 처한 꿀벌을 보호하고, 생태계 복원을 위해 '세계 벌의 날(5월20일)'을 제정한 주한 슬로베니아 대사관과 한스자이텔재단 한국사무소와 협력해, 농어촌공사 소유의 강원도 현남 저수지 주변 유휴부지에 밀원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농어촌공사는 이번 협약으로 쉬나무 등 밀원수

식재를 통해 꿀벌의 중요성과 생물 다양성의 가치 증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농어촌공사는 기획과 부지제공을 맡고, 주한 슬로베니아 대사관과 한스자이텔재단이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했다.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꿀벌 보호를 위해 동참해 준 주한 슬로베니아 대사관과 한스자이텔재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공사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꿀벌 생태계와 양봉농가 소득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아직도 봉안당에 보관하십니까?

이제는 자연친화 수목장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미리 준비하세요.

☆수목장 무료 안치

지역사회의 상생과 복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수목장 무료안치를
진행합니다.

- 1. 광주광역시민(인근까지 인정)
- 2. 본 단체 회원에 가입한 분에 한함

수목장
장점

- 자연과 함께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공간을 만듭니다.
- 우리 수목장은 낮은 관리비와 영구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 365일 관리되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의 추모가 가능합니다.
- 묘지 관리에 대한 후손들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 광주시내권에서 20분 이내 편리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광주 수목장

24시간 연중무휴
■ 062-449-4446